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78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4일

발 의 자 : 우형찬, 문영민, 채인묵, 이태성,
이호대, 노승재, 황규복, 김용연,
김화숙, 김희걸, 성흠제, 홍성룡,
박상구, 신정호, 경만선, 정진철,
장인홍, 김 경, 성중기, 권수정
의원(20명)

1. 주 문

- 전국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사후 관리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반면 항공기 운항과 공항 운영에 따른 수익은 소음 발생 원인자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증편과 노선 확대, 군공항의 전투기 훈련 강화 등 오히려 항공기 소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광역의회와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회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

안하며,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공동대응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 각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대책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공동대응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이 송 처

- 가. 국 회 : 국회의장
- 나. 정 부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 다. 지방의회
 - 광역의회 :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기초의회

- ▶ 서울 : 양천구의회, 강서구의회, 구로구의회, 금천구의회
- ▶ 부산 : 강서구의회
- ▶ 대구 : 동구의회, 남구의회
- ▶ 인천 : 중구의회
- ▶ 광주 : 광산구의회
- ▶ 울산 : 북구의회
- ▶ 경기 : 수원시의회, 성남시의회, 평택시의회, 의정부시의회
- ▶ 강원 : 양양군의회, 횡성군의회, 강릉시의회
- ▶ 충북 :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
- ▶ 충남 : 서산시의회
- ▶ 전북 :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
- ▶ 전남 : 무안군의회, 여수시의회, 영암군의회
- ▶ 경북 : 포항시의회, 울진군의회, 예천군의회
- ▶ 경남 : 사천시의회, 창원시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전국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가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간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이동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방위를 위해서라면 항공기 운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스스로 소음측정 결과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등 원인자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비상식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지도 작성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소음측정 결과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군공항 역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항 이전에 대한 약속도, 소음저감 대책의 성실한 이행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 등도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사후 관리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반면 항공기 운항과 공항 운영에 따른 수익은 소음 발생 원인자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

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증편과 노선 확대, 군공항의 전투기 훈련 강화 등 오히려 항공기 소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 각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결국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대책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던 바,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광역의회와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회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하며,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공동대응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